

군산시, 코로나 확산 차단

익산시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 늘려

4·5번째 부부 확진자 군산의료원 8층 격리실 각각 입원 동선 확인·방역 소독 마쳐... 추가 유증상자 감시 강화

군산시는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와 5번째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군산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A(62·여)씨가 확진판정을 받고 A씨의 남편인 B(66)씨가 오후에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군산의료원 8층 격리실에 각각 입원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2분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날 오후 6시20분 공항시외버스를 이용해 군산에 도착했다.

이들 부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맨 앞자리 좌석에 앉아 탑승했으며 운전

기사의 검체 채취를 실시 음성평정을 받았다. 이 공항버스에는 총 15명이 탑승했으나 확진자 부부가 마스크 착용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실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30분 경 택시에 탑승해 지택으로 이동했으나 이 역시 마스크 착용으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운전기사의 검체를 채취해 음성평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동선이 거의 일치했으나 남편인 B씨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경 자신의 사무실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는 4번째, 5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 거

주지 및 직장 내외부 살균소독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을 방문했던 방문자들에게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며 확진자들과 관련해 시외버스 탑승자들의 자진신고 및 신고자 검체를 채취하고 확진자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내 밀접접촉자 확인 및 자가 격리를 요청하고 공항 내 이동 동선 확인 향후 14일동안 추가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에서 4번째 5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 및 방역 소독에 대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군산시민들께서는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세 자녀 이상 가정 1만5천장 배부...휴일지킴이 약국도 확대

익산시가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마스크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특히 시는 지역 약국들과 협의를 통해 주말 휴일지킴이 약국을 2배로 늘리는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지역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마스크 1만5,000장을 보급하고 있다. 대상은 모두 2,835세대로 각 세대에 마스크 5매와 물티슈가 포함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주말에도 마스크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휴일지킴이 약국을 확대운영한다.

익산시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구입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약사회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휴일지킴이 약국은 기존 11곳에서 25곳까지 확대돼 시민들이 휴일에도 안심하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일지킴이 약국 명단과 전화번호는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는 약국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앞서 익산시는 마스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가 자체 구입한 마스크 4만5천장을 보급했다. 또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지역사회 참여로 민관이 함께 제작한 면 마스크 3만3천장을 배부하는 등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익산형 마스크 공급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취약계층 집단생활 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방문객 통제, 요양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 중 유증상자 일일 모니터링, 방역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지역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스크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그동안 취약계층 8만 2,000여명 대상 다중이용시설 2만5,000여명, 병원과 경로당 2만9,000여명 면마스크 3만3천장 등 총 23만장의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어린이·청소년의원 공모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이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가 제7기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을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0년 제5기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을 군산시청·어린이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30명 이내로 어린이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청소년의원은 관내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관심 있는 어린이·청소년은 누구나 신청,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원은 위촉 후 1년간 모의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한다. 또한 아동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 정책제안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우체통거리' 도시재생 30선 선정

군산시 우체통거리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한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선정됐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진행된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중 구체적인 성과 및 내용을 집약적으로 소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로, 흩어져 있던 각 성공사례들을 한데 엮은 첫 시도이다.

발간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려진 폐우체통을 활용하자는 작은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우체통거리를 만들고 순편지축제까지 여는 마을을 언급하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는 우체통거리 주민들이 지난 2016년 폐우체통에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세우는 아이디어로 첫걸음을 떼고, 2018년 제1회 순편지축제를 개최하며 광범했던 거리는 '우체통거리'라는 도로명까지 얻으며 활기를 되찾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 수제 마스크 ‘나눔의 손길’ 훈훈

군산시 여성사회대학 양재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수급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지역 사회 내에 나눔 바 이러스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여성사회대학 양재반 수강생 중 재능기부 희망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제작된 수제 면마스크 3,000매를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하루 평균 500여 개의 마스크를 제작하는 열의를 보이며, 현재까지 봉사에 참여한 인원이 250여 명에 달한다.

시에서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이동센터 등)과 군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등 마스크 지원이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한 수제 면마스크는 세탁을 통해 지속적 사용이 가능한 뿐 아니라 필터만 교체하면 보건용 마스크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 실천을 몸소 실천해주신 여성



여성사회대학 양재반 수강생 중 재능기부 희망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수제 면마스크 3,000매를 군산시에 전달했다.

사회대학 양재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며 "이러한 운명으로 코로나19도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면 소재지는 강경천 우안에 위치한 저지대 마을 및 농경지로 외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한 지역으로 특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곳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상 특성 상황을 볼 때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발해 사면붕괴, 산사태로 인해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지역 점검

정현을 익산시장은 18일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관내 위험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풍수 피해 사전예방과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

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기간은 3월15일~5월15일까지이며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은 여산면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돌이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여산

면 소재지는 강경천 우안에 위치한 저지대 마을 및 농경지로 외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한 지역으로 특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곳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상 특성 상황을 볼 때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발해 사면붕괴, 산사태로 인해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202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2건 안건 의결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가결된 조례는 8건으로,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오임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열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병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오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

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김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임선 의원이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위한 첫걸음,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확충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영숙 부의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민봉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정현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시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